

# 죽음 대면해야 진정 깨달아

기에 비행기에 몸을 싣었다. 그때가 서른셋의 푸른 나이였다. 삼년 동안 절의 소임을 살면서 영어공부에 매진했다. 주변의 보살님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공부 좀 더 하라고 지푸 권했다. 그래서 지명 스님은 미국 필라델피아의 템플대학 종교학과에 진학해 석·박사학위를 마쳤다.

“교포 독지가의 후원으로 템플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지요. 조금이라도 신세를 덜 지기 위해서는 학위를 빨리 마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밤낮없이 공부했어요. 학위를 마치고 나니 건강도 망가졌고, 얼굴엔 기미가 가득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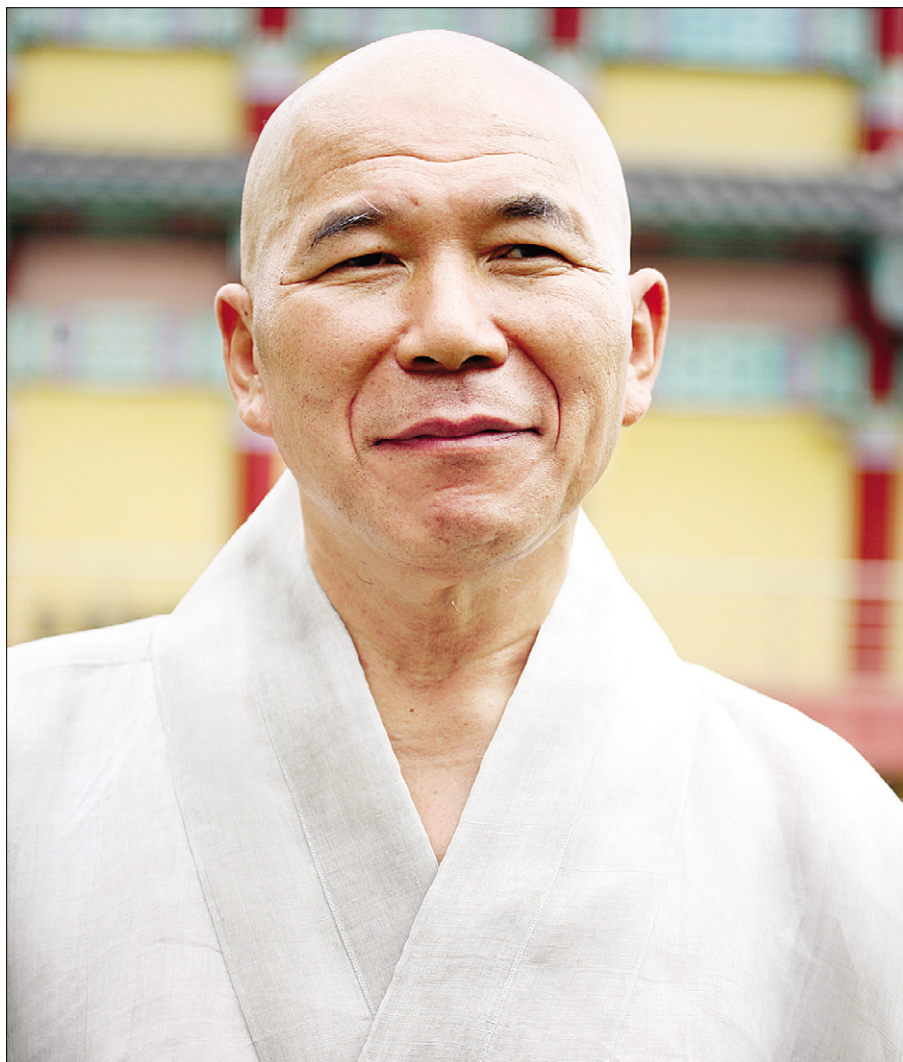
지명 스님은 타국에서 힘들고도 어렵게 마친 공부를 사회에 회향했다. 1993년 불교방송에서 8개월간 <교리강좌>를 맡아 했으며, 이듬해인 1994년에 불교방송에서 <열반경>강의를 했다. 스님의 강의는 장안의 화제가 됐다. 일상사에서 겪는 고통과 번뇌를 예로 들어 쉽고도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기에 불교경전은 어렵다는 선입관을 무너뜨렸다. 이때 방송한 내용은 <허공의 몸을 찾아서> <깨침의 말씀 깨침의 마음> <큰 죽음의 법신> 등 여러 권의 책으로 묶여져 세상에 나왔다.

지명 스님은 2004년 무동력 요트를 타고 1만 4km에 이르는 태평양 바다를 횡단했다. 미국의 샌디에이고 항에서 출발해 4개월에 걸린 대장정을 끝내고 부산항으로 귀환했다. 이를 두고 칼럼니스트 이규태(李圭泰)씨는 ‘사발 같은 통 배에 돛자리 펴 달고 신라를 떠나 동지나해, 남지나해, 뱅글 만을 가로질러 겐지스 강 삼각주에 상륙한 해초 스님’을 이야기하면서 ‘구법정신과 접목한 신라 프런티어십의 현대적 구현으로 불교인식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쾌거’라고 찬사를 보냈다.

“법문을 할 때 생사일여(生死一如) 혹은 생사해탈(生死解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서 과연 생과 사에 끄달리지 않고 초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평안한 일상에서 벗어나 죽음과 대면해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지요. 출발할 때는 알라스카나 남태평양으로 밀려가서 고생하다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스님은 경전에서 읽던 제망찰해도 볼 수 있었다. 나를 당장 삼켜버릴 듯이 덩비기만 하는 파도나 바람이 계속 똑같이 무서운 얼굴로만 있지는 않다는 것을 체험하고는 공사상을 새로 정립했다.”

“집에만 한 파도도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지나면 견딜만할 정도로 변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람이 전혀 없는 무풍지대에 갇히기도 했어요. ‘파도와 바람에게 고정 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공의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있던 파도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바람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없다’로 규정할 수만은 없음을 깨달았지요.”

“바다에 파도와 바람이 있듯이 이 세상에도



많은 위기들이 있다’면서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언젠가는 가라앉게 돼 있으니, 일시적인 위험에 겁먹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혜롭게 극복해야 함을 강조했다. 삶의 시시저저(時時處處)에서 위기를 맞고 또 위기를 넘기는 것이 우리네 생이 아니던가.

높이가 5~6m나 되는 파도가 쉴 새 없이 들이치면 뇌리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 찼고, 그 공포감을 통해 망망대해에서 한 점에 불과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스님은 말미에 “지금 죽는다 해도 미련 같은 것은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생사를 온몸으로 체험했기에 산다는 것도 죽는다는 것도 한조각 구름에 불과함을 여실히 깨달은 것이 틀림없다. 태평양횡단

### 지명 스님은...

부산 범어사 강원과 영천 죽림사에서 내전을 수학.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 마침. 미국 템플대학 종교학과에서 석사, 철학박사 학위 취득. 의왕 청계사, 법주사 주지 역임. 중앙종회의원 역임. 1993년과 1994년 ‘불교방송’에서 <교리강좌>와 <열반경> 강의. 2004년 무(無)를 닦기 위해서 요트를 타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태평양을 횡단. 지금은 각연사와 인연임을 오가며 수행과 포교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허공의 몸을 찾아서> <깨침의 말씀 깨침의 마음> <큰 죽음의 법신> <무로 바라보기> <그것만 내려놓아라> 등이 있다.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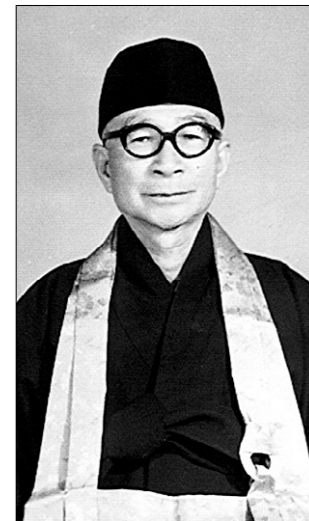
### 57. 법사편 편집장 이희의 대선사

<법사(法施)>는 1972년 조흥은행장 정중원 거사님께서 명자 그대로 “진리의 배품”을 위해서 창간한 잡지다. 사단법인으로 허가가 낮기 때문에 부이사장 이희성, 김인식을 비롯하여 김현갑, 김선필, 조서희, 김중오, 강창근, 전병극, 허복, 박두원, 송금영, 백중홍, 이인식씨 등 재계, 경제계에 뛰어난 인물들이 한데 모여 <법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희의(1905~1990) 대선사는 상임 이사로 <법사>의 편집장을 맡고 있었다.

오랜 세월을 두고 <법사>에 글을 쓰다 보니 막역한 처지가 되어 자주 만나 공양도 하고 차도 마시게 되었는데, 그의 모습은 일본 선종 그대로였다. 일본에는 입제종과 조동종 두 가지 선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조동종은 위빠사나를 중심으로

히 서 있으면 10대 스님처럼 보이지만 사실에 앉아 정좌하고 앉으면 백년 수행자처럼 그 모습이 의젓하다.

“나는 소양인으로 성질이 급했는데, 선을 통해 그 마음을 교정



것인가를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

“포 영가 현각 대사의 <중도가>는 “배움이 끝난 도인은 망상을 제하지도 않고 잠을 구하지도 않는다. 무명실성이 곧 불성(無明實性 卽佛性; 무명의 성품이 곧 불성)이고 환화공신이 곧 법신(幻化空身 卽法身; 허깨비 같은 빈 육신이 곧 법신)이기 때문이다”하여 깨달음의 경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심우도는, ① 소를 찾기 위해 나신 사람이 ② 그 발자국을 보고 ③ 소를 보고 ④ 찾아 ⑤ 소를 먹인다. ⑥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과 ⑦ 집에 돌아와서는 소를 잊고 ⑧ 사람도 잊고 ⑨ 본래의 상태로 돌아왔다가 ⑩ 다시 세상을 향하여 포교하러 나가는 장면이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앉아 무슨 생각을

### “신발 바르게 정리하는 모습도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일”

한 목조선(默顯禪)이고, 입제선은 간화선(禪話禪)을 배경으로 한 화두선이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선에 관심이 많았어도 실제 선에 대한 이론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선사께서 <신심명(信心銘)> <중도가(中道歌)> <십우도(十牛圖)> <좌선의(坐禪儀)> 등 선종 4부목을 내고 또 <입제록(臨濟錄)>을 발간하여 직접 강의를 함으로써 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게 되고 샅년 길, 마군이 길을 막게 되었다.

선방에 가서 한 월만 나도 도인을 자처하고 선사들 근처에 갔다가 한 말씀만 들어도 한소식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선사를 만나면 위축은 듯 조용히 앉아 귀를 기울인다. 옛날에 전혀 듣지 못한 소리를 듣고, 보지 못한 경계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까만 장삼에 황금빛 찬란한 낙자를 매고 단정

하였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그곳에 젖습니다. 법사님은 언제 어떻게 선을 접하였습니까?”

“1956년 송광사 삼일선원에서 살았는데, 보조 국사의 <수심결> <정혜결사문>을 보고 발심하였습니다.”

“영가 진각대사의 <중도가>나 좌암 스님의 <십우도>를 보면 마음의 경계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앉으면 그냥 한 소식 얻은 것 같은데, 소식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사람소식인지 부처소식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하고 선종 4부목을 주셨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지만 오직 가리는(취사선택하는) 것을 깨린다. 미워하고 좋아하는 생각이 없으면 흰하얗게 밝아 지리라.”

3조 승찬 대사의 <신심명>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닦아야 할

하고 도를 닦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르친 것이 좌선이다.

사람들이 흔히 선을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불성(不立文字 直指人心 見性成佛; 문자를 세우지 않으니 곧바로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이라고 하니 전혀 문자를 버리고 생각만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불립문자의 경지라도 문자를 통해 그 경지를 인증하고 나면 선지식을 찾아볼는 것도 쉽게 될 것이다.

“사람마다 신발을 바르게 정리하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습(習)짜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오신 손님들의 신발을 나란히 정리하여 나갈 때 편이하게 신을 수 있도록 정리해 놓으시는 이희의 스님. 항상 조심스럽게 법도만 없으면 흰하얗게 밝아 지리라.” 3조 승찬 대사의 <신심명>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닦아야 할

생명 에너지를 궁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열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자색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색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55,000원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합비 250원 (50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도봉이 배합”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안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택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정도원  
추코파이고봉스님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탁월한  
당뇨에 좋은 웰빙 당조고추 개발

제일종묘사와 농촌진흥연구소 및 강원대와 공동으로 3년 연구 끝에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AGI(A-Glucosidase Inhibitor)는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신 기능성 고추를 개발하였습니다.

AGI는 십이지장 등에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어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데 당조고추를 당뇨에 걸린 쥐에 투여한 결과 식후 30분 후 혈당치가 120-150mg/dl에 평균 180mg/dl에 비해 상당한 혈당강하 효과를 거두었다.

**정도원 주지 고봉 스님의 당조고추**

“현시대 불교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사를 찾던 중 새싹 개발된 기능성 고추인 당조고추를 재배하게 되었다.” 평소 농사를 수행하며 생각하던 스님은 대중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당조고추에 천연항생물질(프로폴리스)을 살포하여 기능을 강화시키고, 고추작물에 나무아미타불 염불과 명상음악을 듣게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황금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체 친환경농법을 사용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7월 초 첫 출하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식품검사소에서 농약잔류검사를 의뢰하여 200성분수의 농약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적합한 판정을 받았다.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

- ① 크기 및 색상  
고추명은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라 하고 이 당조고추는 다른 고추에 비해 20~50% 가량 크고 색상은 파피세이나 연노랑에서 오렌지색으로 크며 익을 때 일반고추와 같이 빨강색으로 익는다.
- ② 맛  
당조고추의 맛은 일반 고추 맛과 똑 같으며 안 매운 것과 약간 매운 맛으로 구분된다.
- ③ 할당자야 체험  
당뇨환자들이 식사 전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서 당조고추 3~4개를 먹고 40여분 경과 후 혈당을 측정하여 보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체험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 ④ 성인병 예방에 효과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장기 섭취를 하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된장이나 찜장에 찍어 먹어도 되며 파프리카와 같이 생식용이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 ⑤ 품질  
우리나라 고추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기능성고추입니다. A-Glucosidase Inhibitor 기능성 성분 다량함유되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계최초 기능성 당조고추입니다. 농림부 산하 농림기술관리센터의 농림기술개발사업지원으로 육성된 품종입니다. 강원대학교 이해의 교수와 원예연구 조맹할 박사가 제일종묘농장과 공동으로 연구, 육성한 품종입니다.

7월 부터 출하 된 “당조고추”가 필요하신분자님들 전화주시면 “당조고추”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정도원 :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22  
☎ 054-383-0407